



한국공학 70주년을 맞이해 우리협회 회원 중 고등대학 졸업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공학 70주년에 즈음하여...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Q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는 진로를 정한 고등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로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A 첫째, 마이스터고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정책에 의해 개교하는 학교입니다. 기업체 혹은 지자체 등이 학교 설립 절차에 따라 신설하거나 기존 전문계고교 중 50개교를 인증을 거쳐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학교 운영은 자율학교로 지정고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 교육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현재 전국에 21개 전문계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2009년 8월 현재)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졸업생은 졸업후 4년간 입영을 연기받을 수 있고, 직무 인증을 부여받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수업료도 무료이고, 재학 중 성적 우수생은 해외연수의 기회도 부여받습니다.

셋째,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전원이 에너지 분야 우수산업체로 취업하게 되고, 기업체에서 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산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새로이 개설되는 유명 대학의 산업특성화

학과에 수능시험 없이 직장인 추천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와 공주대학교 외 몇 개 대학 실시 예정)

Q 학교 이름에 독특하게 “전기”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1924년 일본인 安田寬씨는 전기주임 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경성전기학교(京城電機學校)를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전기電機’는 전기와 기계를 뜻합니다. 해방 이후 1946년 京城電氣株式會社에서 본교를 인수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62년 수도권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978년부터 특수목적고교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라는 지금의 교명이 정착되었습니다. 86년의 학교 역사에서 약16년 정도만 학교 교명에서 전기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명의 ‘전기’에는 재단이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한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이고 전기 분야의 특수목적고라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Q 전문계고의 인문계고 전환 등 최근 언론에서 말하는 위기의 전문계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A 약 10년 전 직업교육의 축이 전문계고(당시 실업계고)에서 전문대학으로 옮겨지면서 전국의 전문계 고교는 이전의 명성을 뒤로 하고 침체기로



윤동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장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서비스 업종이 활성화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화, 3D 업종 취업 기피, 병역 문제 등으로 산업체도 전문계고 졸업생을 외면하는 가운데 대다수 전문계 고교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산업 인력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바, 향후 전문계고교 특유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기대됩니다.

Q 수도권공업고등학교는 기능대회 등을 준비하는 기능이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산업현장 현안의 하나는 전문 기능인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의 양성을 목표로 본교는 전기과에서 기능 영재반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노력 끝에 '09년 4월,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육내제어 부문 석권(금, 은, 동 획득)이라는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서울특별시 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방학도 반납하고 교사와 학생이 숙식을 함께 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휴일도 없이 구슬땀을 쏟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본교의 기능반 학생들이 9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제패하고 이어서 세계 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하기를 염원합니다.

Q 수도권공업고등학교는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산업 수요 맞춤형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전기에너지과의 진출 분야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A 마이스터고 개교를 앞두고 산학협력을 위한 학교측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재단인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 계열회사 여러 곳과 산학협력이 체결되었거나 체결 과정에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 상당수 성적 우수자는 한국전력 및 계열사로 취업이 연계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기타 전력 산업과 연관이 있는 건설한 중견기업으로의 취업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학교는 약 40개의 한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산학연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를 졸업하고 전국 각지에서 전력기술인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을 본받아 앞으로 배출되는 본교의 졸업생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인력으로서 전 지구촌을 누비며 활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

졸업생 인터뷰

김영규 회원(No. 1675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제46회 졸업생

(주)건정기술단 대표이사, 現 북서지회 지회장

전기계로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다면 전기를 다루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전이나 발전사 등을 취업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밖에 전기설계·감리·안전관리·공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관련학과 공부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선배들을 통해 자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그 외에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전망 직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종사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기설계·감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공사가 설계되면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다. 졸업 후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최종감독자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전력시설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협회 등록현황

'09. 8. 17 기준

